

2018 호남기록문화유산 시민강좌

호남,  
신문에  
말을 걸다 4

제5강좌

# 한국인의 뿌리, 족보 : 과거와 현재 미래

역사학자, 전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

**박 홍 갑**

『승정원 일기-기록문화의 보물』 『양반나라 조선나라』

『우리 성씨와 족보 이야기』 『사관 위에 하늘이 있소이다』

일 시 3월 27일(화) 저녁 7시

장 소 빛고을시민문화관 4층 광주문화재단 다목적홀

주최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Regional Cultural Exchange Foundation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광주문화재단  
Gwangju Cultural Foundation



# 한국인의 뿌리, 족보 : 과거와 현재 미래

朴 洪 甲 (전 국사편찬위원회)

- 차 례 -

- 족보의 발달단계와 특징
- 조상계보 기록의 두 방향성 ; 조상 감추기와 전통 만들기
- 조상 찾기 계보 전쟁
- 핏줄과 족보, 어떻게 풀 것인가?
- 내 가문 전통 가꾸기

## □ 족보의 발달단계와 특징

우리의 족보 발전 과정을 크게 나눈다면 그 기점은 17세기 후반이 될 것이다. 그 이전에 간행됐던 족보와는 내용과 형태가 많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족보라면 당연히 18세기에 들어가서 완전한 형태로 자리 잡아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우리 역사상 초기 족보는 대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첫째, 지파별로 힘을 모으는 공동 작업이 아니라, 어느 한 가계家系 구성원의 개인적인 발상과 노력으로 만들어졌다. 둘째, 아들과 딸의 구분 없이 출생순으로, 외손(녀)도 친손(녀)과 마찬가지로 세대를 제한하지 않고 편찬 당시까지 인원을 모두 수록했다. 셋째, 인물에 대한 자호字號, 생몰년, 과거급제와 관직, 묘소재지와 좌향坐向 같은 내용은 신지 않았다. 넷째, 처의 본관이

나 4조(부.조.증조.외조)와 그에 대한 이력 사항 같은 처계妻系를 기록하지 않았다. 다섯째, 향직을 수행하는 이파吏派와 서얼 출신인 서파庶派를 제외한 '양반자손보'의 성격을 지녔다.



초기 족보에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외손 당대만이 아니라, 외손에 외손에 외손으로 한없이 이어지는 외후손을 족보에 차별 없이 등재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그것은 내.외손을 구분하지 않고 동등한 가족의 지위를 인정했다는 뜻이다. 예컨대, 1476년에 만든 우리나라 최초 족보 『안동권씨성화보』에 등재된 인물 8,000명 가운데 정작 안동권씨는 360명에 불과하다. 그 나머지는 모두 외손들인 타성他姓들이다. 그리고 조선 전기까지 양자를 들여 가계를 잇는다는 관념도 없었다. 그러하니 초기 족보엔 가계가 단절된 경우가 꽤 많다. 이렇듯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조선시대의 사회풍속과는 거리가 먼 것이 17세기 이전에 생산된 초기 족보다.

이렇듯 가승家乘이나 족도族圖 혹은 내외종합보 같은 초기 족보는 남계男系 위주의 친족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란 점이다. 남계 위주의 친족만을 대상으로 하는 족보는 대개 17세기 후반에 나타난다. 아들 위주로, 더 좁혀서 장남 위주의 사회로 가면서 친족의 조상을 찾아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 시조 아래 후손을 함께 실어야만 했다. 이제는 외손을 무제한 수록한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사회로 변한 것이다.

아울러 남계 위주의 친족을 대상으로 한다 할지라도 광범위하게 흩어져 있는 동족을 빠뜨리지 않고 모으는 일이 만만치가 않았다. 이는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어서 공동 작업이 필요했다. '창시보'라 할 때는 언제나 인쇄물로 간행된 족보를 말하는데, 이는 공동 발의와 공동 노력에 의해 편찬, 간행됐음을 전제로 한다. 구체적으로 족보에 수록할 명단 및 관련 기사의 작성과 제출, 편찬과 간행에 들어가는 경비 역시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를 '합동계보'라 한다. 합동계보가 실질적인 족보였다. 개인이 편찬했던 초기 족보는 자기 조상을 자세하게 기록한 반면에, 방계는 계보로 연결한 선만 있다. 그런데 합동계보는 범례라는 원칙으로 기술 방법과 내용을 정했기 때문에 특정인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없는 구조였다.

조선은 가히 보학譜學의 나라라 할 만큼 다양한 족보를 간행해왔는데, 여러 씨족의 족보를 종합한 계보서인 『동국씨족보東國氏族譜』 『백씨통보白氏通譜』 『청구씨보靑丘氏譜』 『조선씨족통보朝鮮氏族統譜』 등도 그중의 한 부류이며, 이런 토대가 후일 『만성대동보萬姓大同譜』로 이어졌다. 조선 사회에서는 일찍부터 이런 종합보가 발달해 잡다한 씨족의 계보를 집대성해왔는데, 이런 종합보가 개별 가문의 씨족보보다 오히려 더 일찍 발달했다는 것이 우리 가계기록 역사의 특징 중의 하나였다.

## □ 조상계보 기록의 두 방향성 ; 조상 감추기와 전통 만들기

나라에 건국신화가 있듯이 각 성씨들마다 시조신화가 있기 마련인데, 신화의 전승은 집단 기억의 출발이다. 우리들의 시조신화는 ①천손하강형(天孫下降型), ②난생상생형(卵生箱生型), ③이류(異類交婚型), ④지손용출형(地孫聳出型)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신라 6촌의 이.최.배.정.손.설씨, 알이나 상자에서 나왔다는 박.석.김과 파평윤씨. 남평문씨.달성배씨 시조신화, 사람 아닌 다른 동물과의 교혼으로 탄생했다는 견씨.남원진씨.충주어씨.평강채씨.창녕조씨 시조신화, 땅에서 솟았다는 제주도 3성혈의 고.부.량씨 등의 신화가 그것이다. 문화권역에 따라 형을 달리하는 신화는 후세인들이 만든 것이겠는데, 구전되다가 집단기억으로 고착화되어 갔을 것이다.

현재 남한에 살고 있는 인구는 4천 9백만 정도이며, 이 중에서 가야계와 신라계를 포함한

김씨는 약 1천만 명에 이른다. 아울러 박씨가 340만 명, 전주이씨가 260만 명을 헤아린다. 그러하니 전체 인구의 1/3은 박씨나 김씨(신라계 김씨와 가야계 김씨)가 아니면 전주이씨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이들 성씨의 직계 선조를 거슬러 올라가다 10세기 전후에 살았던 인물을 찾아보면, 박씨는 경명왕, 신라계 김씨는 경순왕, 가야계 김씨는 김상좌, 전주이씨는 이금휴로 연결된다. 이들이 살았을 당시의 총 인구가 약 50만에서 1백만에 이른다고 추정되는데, 이들 4명은 그 중의 한 사람이었을 뿐이다. 그렇다면 경명왕을 비롯한 4명만이 자식을 무진장 낳았고,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자손을 별로 두지 못했던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우리 성씨의 이런 오류에 대해 관심 있는 학자들은 알고 있었지만, 학술지 논문에서 정식으로 지적한 사람이 바로 UC Irvine 대학 유진 Y. 박 교수이다. 이처럼 우리의 조상에 대한 집단기억은 출발부터 명백한 오류에 빠져있다. 그리고 자신의 성과 본관 그리고 조상에 대해 의심해 보려고 하지도 않았고, 의심해 본 적도 거의 없다.

성관 문제에 있어 한국의 18세기는 격동의 시기였다. 농촌이나 도시를 막론하고 17세기말까지 성관을 가진 인구비율은 50% 내외였지만, 그 이후 100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90%를 상회하는 자들이 성관을 지닌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아래의 표는 조선후기 대구지역 성관 획득 상황을 시기별로 정리한 것이다. 문제는 새로운 성관을 획득한 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쓰고 있던 기존의 성과 본관을 선택한 것이지, 창성.창관을 한 것이 아니었다. 쉽게 말해서 조상 갈아타기를 한 셈이다.

〈표 2〉 대구부 서상면의 姓과 姓貫 수의 분포

구분 \ 연도	1681년	1717년	1756년	1783년	1825년	1858년
姓 수치	44	53	63	61	67	64
姓貫 수치	119	147	195	210	231	186
有姓貫戶 비율 (A/전체호수*100)	55%	68%	76%	92%	93%	93%
有姓貫戶 수치(A)	444	658	1068	1401	1650	1572
전체 戶數	806	965	1398	1528	1772	1693

그러하니 새로 성관을 획득한 사람들은 족보에까지 이름을 올려야만 최종적인 마무리가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조의 방법 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다. 17세기까지도 족보는 의례 양반들만의 잔치였다. 한양의 중심부에 살았던 중인들이나 지방의 향리는 물론이고, 양반의 자손임에도 첩에게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던 서얼들까지도 족보에 등재시키지 않았다. 같은 조상을 둔 혈손이었다 할지라도 신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조선시기에는 일정 지역 안에서 함께 생활하는 종족 내부에서조차 사족과 이족이 공존하였고, 이 경우에도 초기에는 사족들만 족보에 이름을 올렸을 뿐이었다. 향리가 족보에 오르기 위해서는 사족 신분으로 승격해야만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하니 새로 성관을 획득한 하위계층은 독자적으로 가족사를 정리한 가계기록이나 족보를 만들어야 하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다. 가급적 명망 있는 성관에 편입되어 그 위세 공유를 꾀하려는 시도가 줄기차게 일어났던 것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족보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경우가 더 많은 모양이다. 현재 밀양박씨가 약 300만 명을 넘기고 있는데, 이들 중에 족보에 올라가 있는 수치는 약 13%에 불과하다는 것이 유진 Y. 박 교수의 진단이다.

부계로 유전되는 Y염색체 내의 돌연변이 분석은 어느 두 남성의 공통된 친직계 조상이 대략 몇 세대 전에 살았던 인물인가를 추정해 낼 수가 있는데, 이런 방법으로 한국인의 동일 성관(姓貫) 사람들을 분석한 생물학적인 혈연관계 결과가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도 우리는 모두가 단군의 자손이다. 단군이 지배했던 고조선에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었건만, 그들은 우리 계보의 집단기억에서 사라져 버렸다. 우리의 계보기록에는 조상 감추기와 전통 만들기가 동시에 진행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고려사나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인물을 분석해보면, 불리한 것은 감추고 없는 것은 새로 만들어 넣은 사례가 많은 것에서 쉬이 짐작이 된다.

## □ 조상 찾기 계보 전쟁

### [사례 1] 조상 同源說의 허상들

2007년 9월 6일 광주안씨대중회에서는 다각적인 고증을 거쳐 광주안씨 씨족연원을 다음과 같이 확정 공표하였다.

“광주(廣州)안씨 시조는 방걸이며, 고려 태조때 광주지방의 관리로 뛰어났던 분이다. 광주에서 어떤 사람이 지방수령을 죽이고 반란을 일으키자 이를 진압하였으므로, 그 공적으로 대장군에 오르고 광주군에 봉해져 광주를 본관으로 하게 되었다. 성씨를 갖게 된 유래는 신라시대부터 고려초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씨가 없었고, 고려 태조가 후삼국 통일 후에 지방 유력자들에게 성씨를 갖게 하는 정책을 시행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안씨 성을 가지게 된 것으로 추정한다.”

그리고 이듬해인 2008년 9월 4일에 죽산안씨대중회 앞으로 최후의 통첩에 해당하는 통문을 보냈다.

#### 통 문

1. 죽산안씨 공식족보인 1976년(병진년) 죽산안씨대동보와 1999년(기묘년) 죽산안씨대동보의 주요기록 부문 중에 광주안씨 관련기록 전부는 오류임을 언론매체에 공표 또는 광고하고,
2. 죽산안씨의 공식족보인 1976년(병진년) 죽산안씨대동보와 1999년(기묘년) 죽산안씨대동보의 기록을 인용한, 죽산안씨의 모든 기록물과 문중내 지파에서 설치한 석재물에 광주안씨를 표현하는 기록문자는 오류임을 재확인하고, 죽산안씨대중회 책임하에 삭제 또는 파쇄할 것이며,
3. 죽산안씨의 공식족보인 1976년(병진년) 죽산안씨대동보와 1999년(기묘년) 죽산안씨대동보의 기록을 인용한, 국내외 인터넷사이트의 기록 중에 광주안씨를 표현하는 기록은 오류임을 확인하여 죽산안씨대중회의 책임하에 삭제하고,
4. 위 요구사항들은 2008.11.30까지 조치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이와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각별 유의 요망합니다.

## 광주안씨 대종회 회장 안갑원

이는 1976년과 1999년에 간행했던 죽산안씨 족보에 광주안씨 시조를 동생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보낸 통문이었다. 특히 1999년의 대동보에서는 고성이씨 시조 이황(李璜)을 죽산안씨들이 시조로 추대했던 이원(李瑗)의 동생으로까지 연결하였다. 즉 당나라 종실 후예였던 이원과 이황 형제가 807년에 난을 피해 신라에 건너 왔다는 설명이었다. 이황은 1033년과 1063년에 활약한 내용들이 『고려사』에 실려 있고, 고성이씨들이 시조로 추대한 인물인데, 이것 역시 의문이란 점은 학술지를 통해서나 이 책 앞부분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다.

어쨌거나 죽산안씨들이 내세운 이원과 이황 형제의 연결고리가 당나라에서 반란을 일으킨 이국정이었는데, 『신당서』에는 그의 아들과 함께 807년에 처형되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원과 이황 형제에 관한 기록이 나타나지 않는다. 죽산안씨 족보에서 이국정의 아들로 연결시킨 계보는 다음과 같다.

이원 — 지춘(枝春) = 방준(邦俊) ⇒ 죽산안씨  
 이국정 — | — 엽춘(葉春) = 방걸(邦傑) ⇒ 광주안씨 순흥안씨  
           | — 화춘(花春) = 방협(邦俠) ⇒ 죽성안씨  
           | — 이황 — 전지(田枝) ⇒ 고성이씨

우리의 족보 발달사를 살펴보면 18세기 중반이후부터 새로운 풍조가 나타났다. 그것은 시조를 비롯한 조상 연원을 엄청나게 올려 잡는 풍조였는데, 그러다보니 본관을 달리해도 성만 같으면 동일한 조상에서 갈라져 나왔다거나 심지어 성관을 달리하는 종족까지도 한 형제로 연결한 경우들이 많았다. 이 같은 한 때의 풍조 때문에 어느 성씨 할 것 없이 경쟁적으로 조상 세계를 끌어올리는데 혈안이었다. 시조 연원을 중국에 끌어다 붙인 것도 그런 시대적 조류 때문이었다.

안씨와 이씨들이 같은 뿌리였다는 점을 처음으로 제기했던 것도 1700년대 후반이었다. 당나라 농서이씨였던 이원이 중국에서 난을 피해 세 아들 지춘(枝春).엽춘(葉春).화춘(花春)과 함께 신라로 건너왔었고, 864년(경문왕 4) 왜란을 평정한 공으로 안씨로 사성 받음과 동시에 세 아들이 방준(邦俊).방걸(邦傑).방협(邦俠)으로 개명하여 죽산과 광주를 분봉 받았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이 처음 언급된 것은 광주안씨 경술보(1790)였다. 경술보 서두에 「시조 안방걸」과 「변무(辨誣)」란 난을 설정하고 있는데, 전자는 고려 태조때 공을 세워 광주군으로 봉해졌다는 시조 연원을 소개하여 광주안씨 근원이 매우 오래되었음을 나타냈다. 후자는 조상 기원을 중국에 연결한 당시 만연했던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농서이씨들이 와서 안씨가 되었다는 것은 허무맹랑한 것'이라고 밝힌 내용이다. 특히 이는 안씨 3파의 동래설에 대한 순암안정복의 비판적인 견해를 담은 내용이어서 주목을 끈다.

따라서 당시에는 안씨들이 한 뿌리에서 나왔다는 설조차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아니었음을 알 수 있겠다. 그럼에도 광주안씨들은 시조 연원에 대한 글을 서두에 실었다는 사실에서 당시 추대된 시조가 안방걸이었음을 천명한 셈이다. 그리고 족보 본문에 해당 계보표에는 안수-안정을 1세와 2세로 할 수밖에 없었다. 시조로 내세운 안방걸과 1세의 안수를 연결할 수 있는 계보자료가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방걸은 명목상의 시조일 뿐이고, 실질적인 시조

는 안수였다.

이렇듯 안씨들이 모두 한 뿌리였다는 안씨동원설(安氏同源說)이 나온 것은 18세기 후반 무렵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오씨나 노씨를 비롯한 다른 성씨들이 그들의 시조 연원을 중국에 연결했던 것과 동일한 맥락이었다. 순흥안씨 가문에서는 1546년 병오보를 간행한 이래 전후 5차례 정도 족보를 간행했지만, 죽산안씨나 탐진안씨 계보와 연결시키지 않고 있었다. 그러다가 1830년 경인보를 발간할 때 안씨동원설에 근거하여 죽산안씨를 입보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안씨동원설을 두고 순흥안씨 종족 내부에서 큰 홍역을 치른 것은 물론 본관을 달리하는 다른 안씨들과도 크고 작은 시비도 끊어지질 않았다. 순흥안씨 족보를 편간할 때마다 시비로 얼룩질 수밖에 없었는데, 죽산안씨나 탐진안씨 계보에 대한 입보와 삭보를 거듭하였던 것에서 그 전말들이 잘 드러난다.

한편 죽산안씨 족보는 1801년의 신유보로부터 시작된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때부터 그들의 조상이 순흥안씨 혈통에서 분리된 것으로 해왔다. 죽산안씨의 실질적 시조였던 안원형을 문숙공 안목의 둘째 아들로 연결시켰던 것이다. 안목은 고려 후기 성리학을 도입한 안향의 손자이다. 그러니 죽산안씨 시조 안원형을 안향의 증손으로 연결한 셈이다. 그러나 안향의 피를 이어받은 직계 후손이라면 더없이 좋겠지만, 걸출한 역사적 인물이 탐이 나서 억지로 연결하였다면 환부역조 행위였다.

양 씨족들 간에 벌어진 분쟁은 바로 이 문제였다. 안원형이 안목의 아들인가 아닌가에 대한 시비는 끊임없이 야기되었고, 1998년에 순흥안씨종친회가 정관을 개정하여 죽산·탐진안씨들은 자기들과는 상관없는 혈족이라 결정했다. 그러나 이 분쟁은 여러 계파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여서 씩씩하게 해결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변무」에서 순암 안정복이 조상을 중국과 연결했던 폐해를 언급하면서 비슷한 사례로 압해정씨와 의령남씨를 들었는데, 이에 대해 따로 확인해 보니 역시나 대동소이한 내용이었다. 당나라 사람 정덕성(丁德盛)이 대상 자리에 있다가 853년(문성왕 15) 신라 압해도에 귀양을 왔는데, 그가 귀화하여 우리나라 정(丁)씨 연원을 이루었고, 후일 나주(압해)·창원·영광·의성의 4분으로 나누어졌다는 것이다. 또한 당나라 여남 사람 김충이 755년(경덕왕 14)에 일본 사신으로 갔다가 태풍을 만나 신라 유리지(有隣地; 경북 영덕 축산면)에 눌러 살게 되었는데, 여남(汝南)에서 왔다하여 남씨로 사성 받았고, 그 후손인 남홍보·남군보·남광보 등 3형제가 충렬왕때 공을 세워 영양·의령·고성남씨 시조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본관에 상관하지 않고 공동조상을 중국에 연결한 오씨나 노씨 등에게도 나타나는 천편일률적인 스토리텔링이다. 압해정씨와 의령남씨는 조선조의 대표적인 명문가였다. 압해정씨는 그 유명한 다산 정약용 형제를 배출하였으며, 의령남씨는 조선초기에 개국공신을 비롯한 재상들을 줄줄이 배출하여 당대에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가문이 되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선후기 한 때의 시류에 휩쓸려 조상을 중국에다 연결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 [사례 2] 조상 同源說과 장씨들의 계보 전쟁

조상과 시조문제로 급기야 검찰에 고소하는 사건으로까지 간 경우가 허다한데, 여기에는 장씨 문중이라고 예외가 아니었다. 1763년(영조 43) 태사공 장길(장정필)을 시조로 연결한



이른바 8관 장씨족보에 “우리나라에는 본래 장씨가 없었는데, 태사 장정필이 중국에서 들어온 이후 장씨가 있게 되었으며, 우리나라 장씨는 모두 장태사 후손이다”라고 하였듯이, 본관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장씨들이 한 뿌리에서 갈라졌음을 강조했기 때문에 벌어진 해프닝이었다.

장태사란 고려 태조공신이었던 장정필을 가르킨다. 왕건이 안동지역을 경략할 때 도왔던 김선평·권행·장정필 등이 공신으로 책록되어 삼태사로 추앙받는 동시에 이들이 각각 안동김씨·안동권씨·안동장씨 시조가 되었다. 그러나 조선후기에 들어와 김씨와 권씨들은 삼태사 향사때 자기 조상에게 먼저 잔을 올려야 한다는 위차문제를 놓고 큰 시비를 일으켰는데, 그 내용들이 『조선왕조실록』에 소상히 나타나기도 한다.

아무튼 모든 장씨들이 한 뿌리에서 갈라졌다는 장씨동원설을 놓고 발끈한 쪽은 인동장씨였다. 우리가 왜 안동장씨 쪽으로 들어가느냐 하는 것이 이유였다. 인동장씨라면 조선중기 대학자 장현광을 배출한 삼한갑족의 명문 중에서도 명문으로 이름났기 때문일 것이다. 인동장씨 시조 장금용을 안동장씨 장정필 15세손으로 넣은 족보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 18세기 말부터였다. 안동장씨 시조의 15세손들인 선용·갑용·을용 형제들의 용자 항렬에 맞춰 넣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1920년대에는 장금용이 태사공 장정필의 손자로 계대가 정해지기도 했다.

계대가 이렇듯 같지자 행보를 했다는 것은 확실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이고, 또한 그 과정에서 수많은 논란과 시비들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8개 본관의 장씨들이 연합한 범장종친회에서는 장금용이 안동장씨에서 갈라졌다는 설을 내세웠지만, 이에 대립각을 세운 인동장씨들은 한 치의 양보도 없었다. 이렇듯 지루한 공방전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 [사례 3] 한 인물을 놓고 벌이는 조상 쟁탈전

지금까지 살펴 본 것은 조상들이 한 뿌리에서 갈라져 나왔다는 동원설이었지만, 아득한 옛날 인물을 놓고서 서로 자기 조상이라 우겼던 시비 또한 적지 않았다. 1153년에 찬술했던 김의원묘지문에는 그를 ‘나주 광양현인’이라 하였고, 김의원 장녀인 최윤의처김씨묘지명에도 ‘광양군부인(光陽郡夫人)’이라 하였다. 『고려사』 열전 김약온전에서 그를 ‘광양현인’이라 하였고, 『동국여지승람』의 광양현 인물편에도 김약온을 신고 있다. 『동국여지승람』 편찬 원칙은 인물들을 본관지에 신는 것이었다. 아울러 김약온의 사위인 윤언이묘지명에도 윤언이 처 김씨를 ‘광양군대부인’이라 하였다.

이에 따라 김의원 묘지에 기록된 그의 상계 인물인 김길까지는 광양김씨 인물로 해석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은 이미 광산김씨 족보에 올라가 있던 인물이었다. 이에 대한 해석을 놓고 학계나 문중에서도 신경전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동안 상계를 알 수 없었던 광양김씨 종중에서 1997년에 족보를 간행하면서 지금까지 광산김씨들이 모시던 조상을 자기들 족보에 올렸다. 그리하여 조상 문제로 양 문중에서는 당분간 뜨거운 세월을 보내야 할 것 같다.

문제의 핵심은 ‘광양현인’이란 것이 거주지를 표현한 것이냐, 아니면 본관이냐를 놓고 첨예한 대립이 될 것이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바로 교하노씨 족보다. 고려 명종때 활약하던 상장군 노탁유는 교하노씨 족보에 올라있다. 노탁유묘지명이나 『고려사』에는 노탁유와 그의 아버지 노영순에 대해 “기계현인”이라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기계노씨인지 교하노씨인

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데, 이 자료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계보는 “[?]居—安孟—永醇—卓儒—陽赫”이다.

교하노씨들은 위의 노안맹 이하 계보를 그들이 추대한 시조 노강필과 바로 연결시켜 족보를 만들었다. 즉 노안맹이 노강필의 아들로 연결된 것이다. 그런데 노안맹과 그 자손들이 활약한 시기는 대략 1160~1211년 무렵이었고, 교하노씨 시조 노강필의 활동 시기는 930년 무렵이었다. 이들 사이에는 약 250년 이상의 시차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시조 노강필과 노안맹을 부자간으로 바로 연결한 것이 교하노씨 족보였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애당초 부실했던 가계기록을 놓고 서로가 자기네 조상이라고 우기는 사태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진실로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차라리 공간을 비워놓는 것이 왜곡시키지나 않는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건만, 조상 세계를 보다 멀리 끌어올리려는 데서 이상한 계보들이 되고 말았다. 중요한 것은 자기 할아버지를 모셔놓고 숭모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남의 할아버지를 모셔놓고 절하며 산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꼴이 아닌가. 우리의 지난 세월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한다.

#### **[사례 4] 宗統을 놓고 벌이는 씨족 내부의 혈투**

능성구씨 좌정승공파 파조는 고려말 시중을 역임한 구홍이며, 손자 구익령이 의성군수로 연을 맺어 그 후손들이 경상도 의성과 대구 일원에 세거해 왔다. 구익령의 6대 종손인 구회신은 임진왜란 전에 나누나씨와 혼인하여 1남 1녀를 두었으나 전쟁으로 생이별하고 말았고, 다시 대구지역 사족의 딸이던 풍천임씨와 결혼하여 유처취처가 되어 버렸다. 이런 사실을 나중에 안 전처 나씨 소생 구문상과 그 자손들은 200여 년에 걸친 투쟁을 벌이게 되었는데, 19세기 말경에 예조 입안(立案)으로 적처로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그 때까지 후처 임씨의 양자였던 구인계 후손들이 종통을 이어왔기에, 이 판결은 새롭게 종통을 둘러싼 분쟁으로 발전하고 말았다.

전처 나씨 소생 구문상은 1716년 족보에 서자로 기록되었고, 1787년 족보에서도 여전히 서자로 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1853년 족보에서 구문상은 적자로 인정을 받았으나, 후취로 된 나씨부인 기록은 바뀌질 않았다. 그런 사정으로 인해 종가의 종손권은 여전히 후처 임씨의 양자였던 구인계 후손들이 장악하고 있었다.

이에 분개한 구문상 후손들은 1890년 고종이 행차하던 어가 앞에서 팽과리를 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격쟁을 시도했다. 사건이 쉽게 결말이 날 듯하자 종통을 지켜왔던 구인계 후손들도 다급해졌다. 이들 역시 격쟁을 시도하여 종통권 수호에 목을 매었는데, 조정에서 해결을 시도했지만 서로가 내놓은 자료들을 가짜라고 우기는 통에 시끄럽기만 하였다. 그 후 1905년 족보에서 나씨가 초배(初配)로 기록되었지만, 종통을 둘러싼 양가의 후손들의 분쟁은 결국 일제시기의 법정으로까지 가게 되었다. 일본제국주의 법정에서는 1.2.3심을 거치는 동안 여러 상황을 검토하였음에도 최종 판결을 미룰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결국은 1912년에 제령(制令) 제11호 조선형사령에 의해 폐지된 구조선의 형법대전 16조를 끌고 와 적용하였다. ‘聽訟期限(20년)經過’란 내용으로 사건을 종결처리 하고 말았으니, 지루한 공방전은 이후에도 계속될 수밖에 없었다.(이종일, 1992, 『능성구씨 좌정승공파의 종중시비』 『법사학연구』 13, 한국법사학회)

### [사례 5] 종족 내부의嫡庶 갈등과 譜訟

영산김씨는 충청도 영동을 본관지로 한 세족인데, 조선초기 대학자였던 김수온을 현조로 모신다. 영산김씨 대종회에서는 각 지역에 흩어져 사는 종인들에게 족보를 간행 하자고 제안하였다. 이리하여 충청도 영동에다 보청(譜聽)을 설치했던 것이 신미년(1871?)이었다. 그로부터 1년이 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새로운 족보가 간행되어 여러 종원들에게 배포되었는데, 문제는 오류가 많았다는 점이다.

이리하여 그로부터 몇 년이 흐른 을해년 5월에 김수온의 17세손이었던 김기배를 비롯하여 김병로·김수정 등이 연명으로 한성부에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여러 명이 연명하여 올리는 이런 탄원서 형태를 등장(等狀)이라 하는데, 그 문서의 골자는 크게 두 가지였다. 김기배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이상의 배위 묘소 소재지와 조모 성관에 오류가 있었음을 지적했고, 이는 실수에 의해 빚어진 것이기에 바로 잡으면 될 문제였다.

탄원서를 낸 원고측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은 고의에 의한 족보 훼손과 환부역조 사안이었다. 서자를 구분하기 위해 이름 앞에 붙이던 “서(庶)”자를 생략해 버린 것과 영산김씨와 전혀 관련 없던 자들의 세계를 족보에 편입시킨 두 사건을 두고, 멸륜패상(滅倫敗常)이란 극한 용어까지 사용했음에서 그들의 분노를 잘 읽을 수가 있겠다. 아무튼 이들은 전국의 문중에 배포한 신보를 회수하고, 이런 잘못을 바로 잡아달라는 것이 탄원서 요지였다.

문평공 김수온 이후 가문이 쇠락하긴 했지만, 현조로 받들어지는 문평공이 있었기 때문에 인근에서도 알아주는 망족으로 행세할 수 있었고, 그에 따라 별 볼일 없던 성관을 가진 자들이 영산김씨 족보에 돈을 주고 올렸던 것이다. 통상적으로 세계(世系)가 연결되지 않는 파는 ‘별파(別派)’로 분류하여 본보(本譜)의 부록으로 처리하거나, 책을 분리하여 별보(別譜)로 제작하던 것이 관례였다. 그런데 이 당시는 자식이 없어 대가 끊어진 ‘무후(無後)’의 인물에다 자식이 있었던 것처럼 위조하는 방법이 널리 쓰이던 때였다. 탄원서에서 세계가 명확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돈을 받고 족보에 올려주었다는 김기배 등의 주장은 바로 이런 것을 두고 말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조선후기 족보 편간 과정에서 적서의 엄격한 구분은 성리학적인 대의명분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서자에게는 반드시 표기에 있어 제한을 가하게 되었는데, ‘서(庶)’라는 글자로 표기하거나 한 글자 낮추어 서자임이 드러나도록 하였다. 동시에 적자녀를 다 기록한 끝에다 서자녀를 기록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처와 첩의 구분도 엄격하여, 적자의 배우자는 ‘배(配)’ 서자의 배우자는 ‘취(娶)’ 자를 쓴 후 관련 사항들을 기록하였다. 그런데 새로 간행된 영산김씨 족보에서는 ‘서’ 자를 빼 버린 동시에 ‘첩’을 ‘처’로 ‘얼자’를 ‘적자’로 위조했고, 이에 대한 불만이 팽배하여 관청에 탄원을 내어 해결을 시도했던 것이다.

경상도 상주와 경기도 여주 및 충청도 청안에 살았던 영산김씨들은 새로운 족보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곳에 사는 종인들이 가난하여 신보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이런 와중에 간행 실무를 맡았던 유사 중에 김종로 같은 이는 새로 만드는 족보가 심각한 것을 알고는 전국의 여러 종파에 통문을 돌림과 동시에 고을과 감영에 고발하여 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신보 간행을 주도한 이들이 밀어부쳐 1년도 채 안되어 간행을 보게 된 것이었다.

이런 내용으로 된 탄원서가 한성부에 접수되자, 한성부 판윤은 족보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 부끄러운 행위로 탄식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로부터 1 달 후 김

기배와 김병로 등은 충청도 순찰사에게 동일한 내용의 탄원서를 또 올렸다. 교정유사 김경로가 '서' 자를 빼버리자는 파와 돈을 주고 세계를 편입시킨 파의 주장에 동조하여 신보 회수를 결사적으로 가로막았기 때문이다.

실은 새로 간행하려는 족보에 큰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당초에 김기배와 김병로 등은 자체적으로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했다. 보은의 지산 산지기 집에도 보소(譜所)를 차려 놓고 각지에 통문을 돌려 재간행 하려는 계획까지 세웠다. 그러자 재정과 실무를 담당했던 김광수, 김남규, 김진교, 김경로 등이 합세하여 이를 저지하기 위한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였다. 이리하여 불가피하게 한성부와 충청감영에 탄원서를 제출하여, 주동자인 김경로 처벌을 호소한 것이었다.

그런데도 충청도 순찰사는 한성부 처분대로 종종에서 상의하여 바로 잡되, 다시는 번거롭게 소송을 하지 않도록 하라는 처분을 내리고 말았다. 한성판윤이든 충청도 순찰사든 간에 족보 위조에 대해서는 다 같이 분개하고 있었지만, 몸을 사리는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문종의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다보면 문제가 더 크게 일어날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사건이 종결 처리된 것이 아니기에 3~4년이 흐르는 사이에 교정한 족보를 간행하는 일이 그럭저럭 진행되어 무인년 겨울에는 절반 정도의 인쇄를 마칠 수 있었다. 그런데 용산에 세거하는 종인들이 족보 간행에 참여하지 않아 일을 끝낼 수가 없었다. 아직까지 분쟁 중에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 틈을 타고 김병로 측은 족보 출간을 방해한 자들을 처벌해 달라는 탄원서를 보은군수에게 제출하였다. 이를 접수한 보은군수는 명쾌하게 일을 처리하기 위해 명령을 내렸다. 장재유사인 김광수, 교정유사인 김경로, 도유사의 아들들 모두 잡아들이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다. 족보를 간행할 때에는 엄격한 적서의 분별과 종손과 지손의 구분이 있어야 하거늘 뇌물을 받고 위보를 만든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이후의 관련 문서들이 남아 있지 않아, 보은군수의 처리 결과가 자못 궁금하다.

18세기 후반에서 20세기초까지 씨족사회 내부에서 일어났던 소송 건은 매우 다양하게 전개되었는데, 위에서 살펴 본 보송(譜訟) 또한 당시 사회에서 하나의 큰 흐름이었다. 이런 보송들이 일어나면 대개 종종 내부에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유도할 수밖에 없다. 명백한 오류로 판정난다면 모르지만, 관에서 행여 잘못 개입하면 오히려 분쟁만 키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보로 판정난다면 이를 회수하여 소각시켜 버리는 절차로 이루어졌다. 위보가 곧 성리학적인 기본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이기 때문이다.(규장각, 2001, 『고문서』 23, 72~76쪽)

## □ 핏줄과 족보, 어떻게 풀 것인가?

아득한 옛날에는 혈연공동체에 기초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였다. 특정 정치 세력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모계사회였건 부계사회로 넘어왔건 간에 혈연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 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었지만, 정치 연합체 성격을 띠는 부족장이거나 추장이 나타나면서 지연공동체 사회로 옮겨가게 됐다. 이것이 결국 부족국가의 부족공동체가 되고, 부족국가가 다시 연합해 고대국가를 형성하면서

국가공동체로까지 발전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유지, 발전해온 국가공동체 속에서도 혈연과 지연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가 지속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우리 특유의 姓貫제도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의 성씨는 부계 혈통을 나타내는 혈연적 요소인 성과 어느 특정 행정구역의 본관에 해당하는 씨가 합쳐진 것이며, 이를 토성이라는 고유용어로 사용해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했다. 고려 초기부터 지역별 토성이 본관지에 정착하면서 중앙 관인을 배출해왔고, 이들은 거주지를 개경으로 옮기더라도 원래의 출자지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다른 가문과 구분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원래 거주지를 뜻했던 본관이 고려 후기 문벌사회와 결합되면서 성과 병칭하게 돼 경주김씨,인주이씨처럼 불리게 됐고, 이런 연유로 부계를 중심으로 한 혈연공동체와 본관을 위주로 한 지연공동체가 함께 발달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본관은 혈연을 기반으로 한 것이기에 오히려 혈연공동체에 포함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인간은 어차피 혼자 살기 힘들니까 공동체를 만든 것인데, 혈연공동체는 원한다고 그 일원이 되는 것이 아니다. 태어나보니 박씨 집안의 몇 대손인 것이고, 조상 중에 벼슬한 어른은 누구이며 현재의 명망가는 누구라는 따위의 교육을 받으며 자란다. 아울러 집안의 촌수를 따질 줄 알아야 하고, 온갖 대소사에 참여해야만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 이런 혈연공동체 속에는 가족주의가 좀 더 확대된 '우리 집안'이라는 의식이 깔려 있다. 따라서 혈연공동체에서의 '우리'는 귀속성과 아울러 강한 폐쇄성을 동반한다. 빠져나오고 싶어도 불가능하고, 우리 아닌 다른 사람은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가 없다. 모두 촌수로 얽혀 있고 정으로 맺어져 있으며, 서로 돕고 감싸주는 것이 매우 돈독해 든든한 배경으로도 통한다. 이에 반해 어떤 일을 위해 회사에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와 같은 이익공동체는 원하면 들어갈 수도 빠져나올 수도 있는 개방성이 특징이다. 이익으로 얽혀 있다 보니, 돈이나 사회적 명성을 내세워 안면을 바꿀 수도 있고, 험상궂은 얼굴로 대할 때도 많다. 따라서 사랑이니 정이니 하는 것이 있긴 하나 강도가 훨씬 약할 수밖에 없다.

예부터 서구의 유목민족이나 장사를 하기 위해 떠돌아다니는 사람은 생면부지의 타인과 접촉해야만 살아갈 수 있었다. 그렇기에 직업 중심의 조합(길드)이 발달한 반면에, 한 곳에 정착해 농경을 영위했던 우리 민족은 향약이나 두레 같은 마을 단위의 공동체를 활성화시켰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하나의 섬처럼 존재하던 평생 벗어나기 힘든 마을, 손이 많이 가는 벼농사의 북방 한계 지역에서 협동과 화합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자연적으로 마을이 하나의 단위가 되는 향약,두레,계와 같은 지연공동체가 결성될 수밖에 없었다. 혈연공동체를 제외하면 거의 이익공동체에 지나지 않지만, 지연공동체로 어우러진 영암 도포마을이나 창녕 영산마을의 줄다리기를 보노라면, 이웃과의 공동 이익을 위해 벌이는 거대한 놀이마당이자 한바탕 축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조명해볼 필요를 느끼게 된다.

개인의 고립과 분절화로 치닫는 오늘날 사회적 병리 현상에 대해 '연고에 의한 사회적 결사'를 유용하게 활용할 방법을 찾아 치유의 길로 유도해야 한다. 오늘날도 과거의 전통적인 연고 공동체 개념이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으며, 거주지에 구애받지 않고 혈연,지연,학연 같은 연줄에 매달려 '장거리 유대'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의 조상 뿌리 찾기와 족보를 고장 난 시계처럼 내팽개칠 수도 없는 것이라면, 그에 근거한 혈연공동체나 지연공동체가 보다 건강한 공동체 문화로 거듭날 수 있도록 촉매제로 활용하자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우선 혈연망을 살펴보자. 초현대 사회로 진입하면서 혈연망의 범위가 다소 축소되긴 했으나,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강한 연줄로 지속되는 것이 혈연이다. 씨족별로 조직된 문중은 공통의 조상을 지닌 자손이 제사나 족보 간행 등과 같은 우선 사업을 목적으로 조직된 부계 혈연집단으로, 포함되는 자손의 범위에 따라 대문중大門中·파문중派門中·소문중小門中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예전에는 그 범

위가 농촌 지역의 한 마을이나 인근 지역에 흩어져 사는 동족으로 구성됐지만, 날이 갈수록 그 조직이 도시에까지 확대돼가고 있다. 도심의 빌딩 숲 속에 '○○김씨종친회' '○○이씨화수회' 같은 간판이 즐비한 것을 두고 제일 문필가 윤학준이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거리”라고 표현했듯이, 이 방인에게는 매우 생소하게 느껴질 것이 분명하다.

이렇듯 가족주의적 혈연관계가 보다 넓게 조직된 문중은 사회적 이익단체 내지 압력단체의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우리 사회의 혈연 커뮤니케이션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성별·연령·학력·주거지에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특히 고소득층이나 전문직 종사자 등의 기득권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는 혈연 커뮤니케이션이 종친 간의 인간관계를 다지기 위한 정서적 기능만이 아니라 이해관계를 도와주는 도구적 기능까지 함께 수행하기 때문이며, 그 문중이 배출한 인물이나 공유하는 재산 규모에 비례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지연망인데, 우리 사회의 지역 연고주의를 바탕으로 한 연줄망은 고향에 대한 애착을 넘어 집념으로까지 발전하게 된다. 오늘날 인구의 절반 이상이 고향을 떠나 살고 있는데, 지연 커뮤니케이션은 고향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 이루어질 때 의미가 더 커진다. 낯선 도시생활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 확인만이 아니라 사회생활에 직·간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고,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해 '원격지 지연망'이 점차 확대돼가는 추세이기도 하다.

『삼국사기』 「지리지」에서부터 『신증동국여지승람』까지 역대 지리지에 나타난 군현의 연혁과 변동 과정을 살펴보면, 고대 성읍국가 이래 정해졌던 행정구역이 좀처럼 분해되지 않은 채 존속해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대개 산천을 경계로 하되, 농업을 영위할 수 있는 삶의 조건이 구비된 곳 이어서 그 영속성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아울러 중앙정부에서 실시한 지방민 통제는 군현을 단위로 실시해왔는데, 예컨대 부세액을 정하고 수취 장부를 작성하는 것과 같은 일을 개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특히 고려에서는 군현 단위로 토지와 민의 적籍을 작성하고, 그 지역의 유력 세력에게 토성 분정을 실시했다. 이는 중앙정부가 지방 세력에게 성씨와 본관을 하사해 그들 영역에 대한 지배권과 자율성을 주었던 동시에, 그들을 국가의 지배질서에 편입했던 것이니, 민의 유망을 방지하고 조세와 역을 수취해 국가의 물적 기반을 확보함과 아울러 지방사회를 안정시켜 지역적·계층적인 통합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장치였다. 따라서 우리의 지역 의식 내지 지역주의는 본관을 기본 단위로 생겨날 만한 조건을 구비하고 있었던 셈이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지역 연고주의가 단순한 지연망이 아니라 혈연(혹은 성씨집단)이나 학연을 연결고리로 한다는 점에서 비취보더라도, 본관제도가 지역 연고주의 태동에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한국인에게 피는 물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 진하다. 그것도 부계 혈통을 따지는 피는 더욱 진했다. 그런데 2008년 호적제도가 폐지되고 모계 성을 계승하는 것도 허용된 마당에 더 이상 부계 혈통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일이 되고 말았다. 그렇기는 하지만 오히려 이런 조치는 모계 혈통의 연줄망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어쨌든 한국인은 연줄망에 기대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종친회라는 연줄 커뮤니케이션도 이를 통한 내부 결속만 다질 것이 아니라, 다른 관점을 지닌 구성원끼리 뭉쳐 보다 생산적인 의사 교환을 촉진할 방안을 찾는 게 급한 일이다. 또한 건전한 시민사회 육성과 사회 통합을 위해 행정조직 같은 하향식 공식 채널보다는 연줄망처럼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것이다. 문제는 '금쪽 같은 내 새끼'나 '우

리가 남이가?’라는 연출 커뮤니케이션의 배타적 성격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구성원들의 동기를 공공 이익의 방향으로 끌고 가느냐 하는 데 있다. 그래야만 활용 가치를 무진장으로 소유한 우리 고유의 ‘구조적 특권’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 □ 내 가문 전통 가꾸기

신화와 역사, 이 둘은 서로 거리감 있는 이질적이고 대립되는 개념으로 생각되지만, 인간의 역사는 찬찬히 들여다보면 신화에서 출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역사의 출발점에는 단군신화가 놓여 있고, 중국의 역사는 삼황오제의 전설로 시작되며, 일본에는 이자나기와 이자나미라는 창조신들의 이야기가 놓여 있다. 이처럼 역사의 출발점이 되는 신화는 동양 삼국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로마 신화가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처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듯 모든 역사의 출발선에 신화가 존재하는 것은 고대사회로 올라갈수록 이성 바깥 영역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할 일종의 종교적 역할이 필요했기 때문인데,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로 채워졌다 할지라도 신화 속에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고대인의 시각이 들어 있다. 그리하여 고대 그리스의 아름다운 경치와 인생에 대한 사랑으로 영웅을 찬미하면서 다양한 올림포스 신화를 엮어냈듯이, 우리도 단군 할아버지를 민족 시조의 주인공으로 가공하는 신화를 탄생시켰던 것이다. 따라서 신화 속에 숨어 있는 당대인의 시선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그 본질적인 의미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된다.

나라마다 건국신화가 있듯이 성씨마다 시조신화가 있기 마련이다. 시조신화는 문화권에 따라 유형을 달리하며 구전돼오다가 문헌에 기록됨과 아울러 씨족별 집단기억으로 고착화 되었다. 따라서 신화의 전승은 전통 만들기 집단기억의 출발선이다. 예컨대 기원전 2333년에 하늘에서 환인의 아들 환웅이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이 땅에 내려왔다는 『삼국유사』의 단군신화 내용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곰이 인간으로 화했다는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세계사적으로도 청동기시대에 와서야 비로소 나라가 세워진 것은 일종의 상식에 속하는 일인데, 기원전 2333년은 우리나라 신석기시대에 해당하며, 고조선이 기록에 처음 나타나는 것은 기원전 7세기부터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사실의 역사와 전승의 역사는 언제나 일정한 거리가 있기 마련이며, 특히 전통사회에서 씨족별로 전승돼온 다양한 시조신화를 보면 사실의 역사와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기 일쑤다. 전승의 역사에서 그려지는 주인공은 언제나 일상을 벗어나 너무나 영똥하고 황당하기까지 한 특수한 존재였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각 나라의 건국신화를 애지중지하며 소중히 여기듯이, 씨족마다 가진 시조신화 역시 소중하게 가꾸지 않는 경우는 없다. 이는 각 집단이 가지는 정체성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특정 내용의 이야기를 공유함으로써 그 성원으로 거듭나게 되니, 이성의 영역을 넘어서서 일종의 종교적 차원으로 접근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히 부계 혈연을 매우 중시했던 전통사회에서는 그 조상을 대면하는 태도 역시 종교적 신앙심에 버금갈 정도였으니, 시조설화나 신화에도 맹목적인 수밖에 없었다. 이는 조선 후기에 들어와 종법 질서가 확립돼 장자상속 관행이 굳어져간 분위기 속에서 부계 중심의 족보가 편찬되던 사회상

에 편승된 측면이 컸다. 게다가 조상에만 매달려 그들의 위세를 파먹고 살아야 하는 양반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결합돼 조상 만능주의가 탄생한 데다, 인간의 보편적이고도 본능적 행위와도 같은 뿌리 찾기가 조선 후기 사회상과 맞게 되면서 한국 특유의 족보 문화가 탄생했는데, 부계 중심의 혈통을 밝혀주는 족보는 혈연적 범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결혼한 부부의 두 가문이 한 가족이 되고, 이를 반복하면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한 가족이 된다는 혈연의 보편성과 포용성을 함께 품은 서양의 뿌리 찾기와는 달리, 우리의 족보는 혈연적 배타성과 편협성을 애초부터 안고 출발한 것이기도 하다. 또한 우리가 그동안 가꿔온 역사에서 항상 '반만년을 이어온 단일민족 국가'라는 순수 혈통을 자랑으로 내세웠건만, 실제로는 순종으로 자랑할 만한 혈통이 아니듯, 씨족 단위별 시조 이하 혈통 계보 역시 비슷하다 못해 환부역조와 같은 더한 측면이 많았다.

그러나 수백 년 동안 내려온 가문의 역사와 전통이 사실의 역사와 다른 측면이 있다 할지라도 전승의 역사로 자리매김 해 온 의미를 그냥 흘려버릴 수는 없다. 시조설화를 비롯해 족보에 담긴 형식과 내용이 그 당시의 사회상을 잘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통은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또한 만들어진 전통은 당대의 사회상에 잘 어울리게 가꾸어가는 것이 전통을 이어받은 이들의 소임이다. 그리고 그 소임을 다할 때 우리의 유구한 전통문화는 현대 사회에서도 더욱 빛을 발할 것이다.

그러므로 대명천지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사회에서도 남북 정상의 회담 자리에까지 혈연적 연줄 커뮤니케이션이 큰 활력으로 작용했음을 이미 서두에서도 살펴본 바 있다. 이렇듯 전통사회에서의 소통 수단이었던 보학 커뮤니케이션이 오늘날에 와서도 훌륭한 소통과 화합의 매개체로 기능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인만이 누려온 특유의 정서 때문인데, 우리가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충분히 배타적 성격을 극복하면서 공공 이익의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다고 본다. 우리의 고단했던 역사를 돌아켜봐도 고비의 순간마다 이 땅의 수많은 명문가들이 묵묵히 수행해온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큰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경주 최 부잣집 가훈에서나 이름난 명문가에서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사례에서 이런 사실이 잘 증명되고도 남는다.

우리는 행동거지가 반듯한 사람을 두고 "저 사람 참으로 양반일세"라고 한다. 양반이란 용어 속에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포함돼 있긴 하지만, 이런 언어 습관을 보노라면 양반이야말로 모두가 선망하는 신분이자 품격을 나타내는 바로미터였던 것이다. 우리가 족보에 매달리며 살아왔던 이유가 단순한 뿌리 찾기를 넘어 명문名門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으며, 그러한 명문가들이 각 지역사회에 웅거해 이 나라를 지탱해온 것도 사실이다. 향촌 자치의 공동체 생활에 젖어 있던 우리네 전통적 삶의 방식에서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왔던 것이 각 지역의 명문가였기 때문이다. 자본주의가 발달한 오늘날에는 대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이 전 국민에 대한 삶의 질을 높여주고 있듯이, 우리 전통사회에서는 명문가가 그 사회를 지탱하는 하나의 축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모두가 "우리 몇 대 할아버지는 무슨 벼슬을 하셨고....."라는 식의 명문가 자제로 살아가기 위한 노력의 경주를 해왔고, 이런 면이 자율적인 정화 작용으로까지 발전하게 됐다. 왜냐하면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조상까지 욕을 보인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치욕이었는데, 이것은 조상과 자신을 일체화하는 사유체계가 우리 삶 속에 녹아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우리의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보면 외부에 출타하는 자잘한 일에서부터 대의를 위한 큰 일을 선택하는 데 이르기까지 조상을 모신 가묘家廟에 반드시 고하는 것이 필수 사항이었다. 이처럼 후손으로서 조상 뵈는 행위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전통문화였으니, 조상은 가히 후손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윤리 지침서이자 수호신이나 다름없었다. 이렇진대 각자 제 나름



의 방식에 맞춰 조상신을 가슴에 묻어두고 살아가는 우리는 더 이상 조상을 욱보이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리할 것이다. 그러니 전통 만들기로 시작된 전승의 역사에 대한 집단기억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기능하도록 잘 가꾸어가야 할 필요가 있겠다. 아울러 명문가 유지를 위한 사회경제적 방식도 새롭게 가꾸어가야 할 전통으로 생각된다. 특히나 각박해지고 메말라가는 오늘날의 정보화 사회를 좀 더 풍성하게 해줄 전통문화를 재정립해야 할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의 다양한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본다.

박홍갑, 『우리 성씨와 족보이야기 -족보를 통해 본 한국인의 정체성』(산치림, 2014. 8)

## [강사 소개]

### 박 홍 갑

저자 박홍갑은 1955년 경북 청도에서 출생했다. 영남대 대학원에서 『조선 전기 음식 연구』로 문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조선 전기 정치사회사를 전공했으며,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 편사연구관, 연구편찬실장, 편사부장 및 상임위원 및 경희대학교 겸임교수 등을 역임했다.

조선시대 정치·사회사 분야 40여 편의 논문을 토대로 『조선시대 문음제도 연구』, 『병재 박하징 연구』, 『조선조 사족사회의 전개』, 『사관 위에는 하늘이 있소이다』, 『양반나라 조선나라』, 『우리 성씨와 족보 이야기』 등의 책을 썼고, 『한국전통문화』, 『다양한 문화로 본 국가와 국왕』, 『한국의 예술지원사』, 『승정원일기, 소통의 정치를 논하다』를 공동 집필하며 우리 역사를 널리 알리는 역사대중화에 힘을 쏟고 있다. 국역한 책으로는 『필원잡기』 등이 있다.

## 호남기록문화유산 발굴·집대성·콘텐츠화 사업이란?

기록문화유산은 그 민족의 역사와 문화의 기억창고 역할을 하는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훈민정음, 조선왕조실록, 불조직지심체요절, 승정원일기, 조선왕조 의궤, 해인사 대장경판 및 제경판, 동의보감, 일성록,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난중일기, 새마을운동 기록물, 유교책판, KBS 특별 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와 지난해에 등록된 조선왕실 어보와 어책,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조선통신사 기록물 등 총 16종이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세계에서 네 번째이며, 아태지역에서는 첫 번째로 많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무궁무진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호남의 기록문화유산은 수많은 전란과 인식의 부재로 심한 훼손과 멸실을 겪으며 방치되어 왔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으로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과 호남지방문화연구원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2010년부터 호남의 소중한 기록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하여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발굴·집대성·콘텐츠화 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분야는 호남문집, 호남지방지, 호남서화, 호남누정현판·금석문, 호남고문서, 호남일기자료, 호남한글고문헌, 호남인물검색시스템 등 총 8개 부문입니다. 조사 연구의 결과물들은 호남기록문화유산 홈페이지([www.memoryhonam.co.kr](http://www.memoryhonam.co.kr))와 ‘호남기록문화유산’ 어플리케이션(ios, Android)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호남기록문화유산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시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Regional Cultural Exchange Foundation

주 소 : 501-023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196번길 3 삼호별관 2층

전 화 : 062-234-2727 팩 스 : 062-234-2728

홈페이지 : [www.rcef.or.kr](http://www.rcef.or.kr) 이 메 일 : [r-cultural@hanmail.net](mailto:r-cultural@hanmail.net)

호남기록문화유산 시민강좌 ‘호남, 인문에 말을 걸다4’ 강연자료(비매품)

펴낸이 :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이사장 백수인

펴낸일 : 2018년 3월 27일

※ 이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